

MC : FM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MC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4부 인천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개회와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원의원이 선출이 되었는데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 또 문화복지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소  
감이 어떠하신지요

의원 : 어깨가 무겁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제일 어려운 가운데서 또 2014 아시안  
게임을 치러야 하는 부담까지 같이 안고 있습니다.

MC : 그렇지요

의원 : 그러하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MC : 음, 돈을 제대로 썼는지 또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잘 편성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거죠?

의원 : 시민의 눈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정확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MC : 그 지난 5월이었죠. 송영길 인천시장의 분식결산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  
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 결산안 처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  
지요

의원 : 2012년도 결산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예산만 심의가 끝났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이고요 송영길 시장님께서 무엇을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고 분식결  
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5대때 분식결산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6대  
시의회에서는 분식결산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C : 아 그렇군요. 분식결산이라는게 말하자면 속이는것 아닙니까?

의원 : 어려워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런일도 이루어 질수 있는데 우리가  
꼼꼼히 심의해 보니 5대때 이런 분식결산이 많았어요

MC : 지난 시의회때

의원 : 네 그래서 6대 시의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분식결산을 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MC : 결산안을 심의 하고 하시는거 연말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 네

MC : 자 2013년도 인천시 재정여건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인천시  
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 건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  
였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기본방침이라고 할까요 어떤  
측면을 주로 살펴보실 계획인가요

의원 : 우리 6대 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건축예산에 동참하는 의미로 몇년째 동결  
되고 있는 임금을 내년에도 우리는 동결하자 다른 시도가 올리더라도 공무  
원들 월급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의회만큼은 시의원 만큼은 동결을 하자 이  
렇게 합의를 보았고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  
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MC :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동조를 하시던가요?

의원 : 예. 어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하자고 했습니다.

MC : 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것 외에는 모두 삭감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워 두셨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예산이라고 할까요  
또 긴요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이런 것 들은 살려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추락할 것 같지 않은데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 문화예술 관련 예산 편성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될수 있으면 삭감하고, 저는 신규사  
업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적게 주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  
줄여서 조금이라도 모아지는 예산은 복지와 문화예술쪽에 먼저 지급을 하  
자. 그쪽으로 사용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MC : 건축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라던가 문화예술 관련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런 말씀이신거죠

의원 : 예. 올해도 가슴 아프게 복지예산을 소액 삭감했습니다.

4%를 삭감하면서 저나 사회복지에서 복지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가서 우리 장애인단체에 가서 올해는 4%를 삭감했지만 너무 미안하다 크게 사과 했  
고요 내년에는

MC : 그게 올해 이야기죠?

의원 : 네 올해 그렇게 했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년 2013년에는 당연히 예산을 올려주지 못할망정

MC : 깎지는 않겠다.

의원 : 책정된 예산은 깎지 않고 그대로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MC : 그러시군요. 위원장님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의원 : 네

MC : 그리고 평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애인들의 복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원 : 너무 중요하죠. 장애인하면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후 장애인  
이 있잖아요

MC : 중도장애인

의원 : 살아가면서 중도장애인이 많은데 지금은 또  
노인이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다치고 다리를 관절로 인해서 못쓰면 장애인  
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만명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C : 매년이요?

의원 : 네 매년 그렇게 늘어나는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MC : 그럼 예산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의원 : 욕구는 한없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실에서 그들을 어  
떻게 달래야 하나 저는 그래서 시에다가 장애인 예산을 자르지 마라, 장애  
인들이 어는날 폭발을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장  
애인 쪽 복지예산은 그대로 두고 다른데서 긴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바꿔주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청이 있습니다.

MC : 음...장애인청

의원 : 장애인청이 대통령 산하에 독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나라는 원활하게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예산도 그곳에서 심의하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시에도 시장 산하에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MC : 아 만들어졌군요

의원 :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위원회가 구성되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 인천만이라도 장애인들 살기 좋은 곳 됐으면 좋겠어요. 인권이라든가 복지 문제 다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의원 : 저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 몰래 새나가는 예산을 잡자 그 산을 잡아내서 그것을 복지예산으로 쓰자 잡아낼 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MC : 있겠죠

의원 : 그걸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보자 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 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C : 자 다음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책을 맡으셨다 이렇게 소감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은 내 후년입니다만 내년에 실내 무도경기대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이것을 인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의원 : 네

MC : 이거 어떻게 빠듯한 살림 가운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의원 : 실내무도대회도 아시안 게임과 연관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MC : 네 그렇겠죠

의원 :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안 게임때 채택됐던 종목들이 2014 아시안게임에 탈락한 종목이 있고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 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MC : 있죠

의원 : 종목이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채택이 안돼요. 힘 있는 자의 논리로 힘 있는 나라의 종목이 많이 들어갔다고 나는 솔직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의 우선시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합쳐 보니 약 아홉 개 종목 이 종목을 게임 전에 실내 무도 아시아대회를 하자. 이것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부 지원을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는지 저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게임인데 정부가 주도가 되어야 할 것을 정부가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를 빌려준거 아닙니까. 자리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는지 저는 진짜 화가 나고 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내무도대회도 원활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MC : 아시안 게임이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논리시구요

의원 : 네

MC :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앞서서 실내무도경기대회도 아시아에 하나 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지원이 꼭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끝으로 인천시민들께 한말씀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무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뜻에 보답하기 위해 시와 의회에서도 건축정책과 해외자본 영입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생각하구요 아시안게임 국고지원을 위해 시민과 종교단체 여야정이 똘똘 뭉친것도 50년만에 아마 처음이라 합니다. 인천시에서 당당하게 국고지원을 받아 아시안게임도 성공리에 치룰것이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과 인천시의원들은 밤낮없이 땀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MC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중계탑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의원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